

62. 용접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엽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

성별	남	나이	55세	직종	금속조립구조물 제조업	업무관련 성	낮음
<p>1. 개요: (망)근로자 안○○은 약 35년 전부터 용접작업을 하던중 2006년 1월 24일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2006년 1월 25일 S병원으로 내원하였으나 1월 26일 양측엽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.</p> <p>2. 작업내용 및 환경: (망)근로자 안○○은 1971년부터 용접작업을 시작하여 건설현장과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계속하다가 2006년 1월 OO산업으로 오기 전에 2005년 11월 2달간 OO테크에서 2달간 용접작업을 거의 휴일 없이 매일 9시간씩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. 이 기간 작업후 피로를 호소하고 집에서도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한다. 상기 사업장은 2006년 1월 13일 용접작업을 시작하여 10일간 작업을 하였다. 용접작업은 CO₂ 용접으로 하는데 용접봉을 월 1.1톤 정도 사용하고 2번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(2003년 12월, 2004년 9월) 용접흡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. 현장조사에서도 다량의 흠이 발생하고 있었고,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개인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만 근로자들이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.</p> <p>3. 의학적 소견: 흡연을 전혀 하지 않으나 음주는 1일 소주 1병 20년간 하였다고 한다. 다른 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한다. 채용시 건강진단은 받은 적이 없었다. (망)근로자 안○○은 1월 13일부터 용접작업을 하다가 10일이 지난 23일 아침 기침과 호흡곤란이 심하여 숙소(모텔)에서 쉬다가 1월 24일 호흡곤란이 더 심해져 로컬병원을 거쳐 2006년 1월 25일 S병원에서 중환자 치료를 받던 중 1월 26일 사망하였다. S병원에서 실시한 입퇴원기록을 보면 주증상은 호흡곤란이었고 진단은 양측엽 폐렴이었는데 2006.1.25 백혈구수가 15,000/uL, AST/ALT/gGTP 46/19/14 IU/L이었다. 흉부 CT상 양측엽폐렴 소견이었다. 객담 배양 및 혈액배양검사는 실시했다는 병록기록이 발견할 수 없었다.</p> <p>4. 결론: (망)근로자 안○○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판단되는데, ② 35년간 용접작업을 하였고 만성적으로 용접흡 및 산화철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사망 전 10일 동안 고농도의 용접흡에 노출되었고, ③ 이러한 고농도의 용접흡 노출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, <p>(망)근로자 안○○의 질환은 용접 흡 노출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추정되며, 이는 작업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</p>							